

전주대 외식산업학과, 우리밀요리경연대회 대상

‘토마토 살사 곁들인 불고기 타르트’ 대중성·상품성 높이 평가... 동상 수상도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송산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회 전국 우리밀요리경연대회’에서 전주대 외식산업학과 학생들이 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우리밀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고, 우리밀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진행된 우리밀요리경연대회는 일반·대학부 60팀이 참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우리밀을 활용한 다양한 창의적인 요리들이 선보였다. 이 중 단연 돋보였던 요리는 대상 수상작, 전주대 한효찬·최호준 학생(외식산업학과 2학년)의 ‘토마토 살사를 곁들인 불고기 타르트’였다. 심사위원들은 이 요리의 맛뿐만 아니라 담음새, 대중성과 상품성도 높이 평가했다.

‘토마토 살사를 곁들인 불고기 타르트’는 남녀 노소가 좋아하는 타르트를 우리밀로 반죽하고 그 위에 우리나라 전통 요리인 불고기를 올리고 토마토 살사로 마무리한 요리다. 다소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요리지만 우리나라 불고기와 멕시코 살사의 맛을 조화롭게 잘 살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한효찬·최호준 학생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쁘고 보람도 느낀다.”라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공부와 도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미래를 이끌고 싶다”라고 수상 소



‘제7회 전국 우리밀요리경연대회’에서 전주대 외식산업학과 학생들이 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외식산업학과 3학년 김정훈·이현우 학생팀과 2학년 박영민·강양현 학생팀이 동상을, 3학년 강성원·장운규

학생팀, 김민수·김지은 학생팀이 장려상을 수상하며, 전주대 외식산업학과에서만 5개 팀이 입선했다. /정은성 기자

사수와진의 사랑더하기, 부안군 다문화가족 후원물품 전달

부안군은 (사)수와의 사랑더하기(이사장 안상수)가 지난 13일 600만원 상당의 영유아 의류 80점을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수와의 사랑더하기는 쌍둥이 형제로 이루어진 ‘수와진’이 나눔의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함께 결성한 단체로서 재능기부를 통한 거리 모금활동을 하고 그 수익금을 봉사와 기부에 활용하고 있다.

이날 후원물품 전달을 위해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한 김수천 상임이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들의 행복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후원의 소감을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고 따뜻한 도움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제13회 임실N치즈배 전북 이순테니스 대회 성료

임실군체육회(회장 심민)가 주최하고 임실군 이순테니스협회(회장 박길수)가 주관하는 ‘제13회 임실N치즈배 전북 이순테니스 대회’가 16일 임실 종합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심민 임실군수, 신대용 임실군의회장, 한완수 전라북도부지사, 열규만 전북이순테니스협회장, 박길수 임실이순테니스협회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체육활동과 친목을 위한 대회로, 전북 14개 시·군 200여명의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심민 군수는 대회사에서 “동호인들간에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한편 젊은이들 못지않은 체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주시길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김문석 교수초청 안보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신진균)는 16일 직원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안보전문 강사 김문석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했다.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보강연에서는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반도 안보현실’이라는 주제로 최근 대북관계 등을 살펴보고 북한의 실상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안보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문석 교수는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가인 점을 절대 간과 하지 말고 안보를 마음속깊이 되새겨 우리의 현실을 바로알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로서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 부안읍,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부안군 부안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민관과 공공영역이 함께 지역복지를 만들어가는 제2기 부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위촉장 수여 및 민간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를 각각 선출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과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부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왔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주거환경 개선 및 난방유 지원 등 봉사과 나눔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제2기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행회 민간위원장은 “이웃과 나눔, 온정이 살아 숨 쉬는 동네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현철(부안읍장) 공동위원장은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구성된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6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요지지사 010-9845-9355	팔백지사 253-6944	남원지사 602-0995	정읍지사 538-30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825-419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시 드림스타트, 아동 영양 강화 프로젝트 추진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건강 프로그램 업무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의하면 남원시드림스타트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관내 전체(3세~13세) 아동 214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 사업을 통해 평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부족해진 영양분을 채워 주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영양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양육자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해 심신의 발달과 식습관 교정을 추진, 아동의 적절한 영양공급과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